植民地 韓國에 對한 外部의 視線과 樣相*

이 택 선

성균관대학교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소련, 중국, 그리고, 프랑스 등 외부 국가들의 문서를 중심으로 일본이 1910-40 년대 식민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행사하였던 권력들의 작동을 살펴보는 한편, 이들 외부 국가들이 어떻게 한국에 이러한 권력들을 투사하고 구축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컨대,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시각을 통해 고찰이 이루어졌으므로[1] 객관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외부의 시선을 중심으로 일본이 지배했었던 1910-40 년대 식민지 한국의 상황을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의 지배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소련, 중국 등 해방 이후 한국의 분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외부 행위자들이 어떻게 권력들을 투사하고 구축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명쾌한 해답을 얻지 못했던 한국의 분단 상황 전개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에 수집된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측의 1 차 문서들을 중심으로 박종효가 편역한 1917 년부터 1980 년 까지의 한국관련 소련 문서들을 검토하는 한편, 외국의 1 차 문서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국내, 외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의 2 차 연구들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분석틀의 모색을 위해 국가들 간의 위계질서와 권력 작동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이론을 기본적 틀로 채용하여 보편성을 높이는 한편, 식민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10-40 년대 한국의 상황과 일본의 지배방식을 먼저 서술하였다. 본문에서는 식민지 한국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양상을 강제권력, 구조권력, 제도권력, 그리고, 생산권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1910-40 년대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는 한편,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동북아시아의 패권세력으로 부상될 것이 유력했던 중국을 견제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미국과 소련 간에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져 한국분단의 전조가 펼쳐지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II. 분석틀의 모색

1. 이론적 틀

레이크 (David Lake) 에 따르면 국제관계 속에서도 국가 간 위계질서(Hierarchy)는 존재하며[2] 다음의 논의는 국제관계 속에서의 권력의 작동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보통, 물리적 폭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①강제권력과 ②구조권력은

단기간에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국가의 강압에 의존하는 강제권력의 직접적인 행사가 심할수록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권력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③제도권력을 행사하여 새로운 행위자들이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④생산권력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1960 년 4.19 를 전후한 한미관계에 적용한 정일준에 따르면 ③제도권력의 경우 제도 형성을 통해 제도적으로 관철되는 반면, ④생산권력은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새로운 세대 또는 집단 형성을 통해 문화적으로 작용한다.[3]다음의 논의는 국제관계 속에서의 권력의 작동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1910-40 년대 조선의 국제관계에서 영향을 미쳤던 주요 행위자들로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소련과 미국,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표 1> 국제관계에서의 권력의 유형[4]

		권력효과가 생산되는 사회관계의 구체성	
권력이 작용하는 사회관계의 종류	기존 행위자 간 상호작용	직접적, 구체적	간접적, 산만함
		강제권력(Compulsory)	제도권력(Institutional)
	새로운 행위자의 사회적 구성	구조권력(Structural)	생산권력(Productive)

2. 시기별 특징: 1910 년대-1940 년대 일본의 지배양상과 식민지 한국의 상황

1) 1910 년대 (무단통치기) : 일본이 이식한 강제권력과 구조권력의 작동기로 동시에 일본이 의도치 않았던 새로운 행위자들이 출현하여 3·1 운동을 서민 출신의 지도층들이 추진하였다.[5]

2) 1920 년대 (문화 통치기) : 직접적인 권력인 강제권력과 구조권력은 여전히 작동하는 가운데 1919 년 3.1 운동에 놀란 일본인들이 제도권력과 생산권력 등 간접적이고 산만한 권력의 행사를 늘리려고 하였다. 한편, 일본은 프랑스 정부를 통해 상해의 프랑스 조계에 위치한 임시정부의 활동을 저지하고 임시정부가 소련의 소비에트 과격파와 연대하여 일본의 질서를 교란시키려고 한다는 기사들을 게재하여 임시정부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수반으로 한 초기 상해 임시정부는 1921 년 11 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워싱턴 회의 (Washington Conference) '에 큰 기대를 걸고 이를 통해 제 2 의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였다.[6]

3) 1930 년대: 제도권력과 생산권력 등 간접적 권력의 작동기로 신세대 친일파 들이 점차 출현하기 시작했다. 대체적으로 이들은 조선의 기존 지배 계급출신이라기 보다는 일본과의 결탁을 통해 새롭게 지배세력으로 부상한 경우가 많았다. 1926 년 일본의 조사에 따르면 군수급 조선인 관리 300 명 가운데 260 명은 아전계급 출신이었다.[7] 이들과 함께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해 조선에 도입된 경제자본으로 인해 출현한 신흥 도시계급들이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일본 식민지 체제의 새로운 협력자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본은 1942 년 6 월 23 일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가 소련의 외무인민위원부 극동 2 과장에게 보낸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적극적인 조선의 일본화를 꾀하였다. 즉, 조선총독 미나미 (南次郎) 가 1936 년 부임이후부터 조선인의 일본화 정책을 강화시키는 한편, 조선인의 성을 일본 성으로 개명하고 학교를 일본식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학교들을 폐교조치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의 사용률이 여전히 전체 조선인구의 15%에 불과했기 때문에[8]일본은 1940 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더욱더 혹독하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작동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4) 1940 년대: 강제권력과 구조권력, 그리고, 제도권력과 생산권력 등 모든 직, 간접적인 권력의 작동기로 신세대 친일파들의 행동이 극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들을 벌였기 때문에 이전에 선교사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속해 있었던 기독교계 지식인들 중 상당수가 일본의 제도권력과 생산권력 내부로 포섭되었다.

그러나, 신속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라디오로 인해 일본은 한국인들을 완전히 포섭하는데 실패한다. 1941 년 12 월 말 라디오 수신기를 소유하고 있었던 한국인은 141,354 명으로 119,727 명이었던 일본인이나 1,036 명이었던 기타 외국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였다.[9]따라서, 한미공동작전을 전개하였던 미군이 1945 년 4 월 14 일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라디오는 한국 국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즉, 라디오는 주로 시장에서 소문을 교환하는 한국인들이 새로운 외부의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으므로 라디오를 통해 일본의 거짓정보 전달을 깨뜨릴 수 있다면 일본군의 승전보를 듣고 낙담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저항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10]

한국의 역사학자 정병준 역시 1940 년대 일제 경찰, 재판소가 가장 많이 취급한 사건들이 유언비어 사건이었으며 '미국의 소리' 방송을 중심으로 한 단파방송 청취를 통해 해방 직후 이승만을 좌우익을 막론한 전 민족적 지도자로 간주하는 이승만 신화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한다. 즉, 태평양 전쟁기 이미 일반 한국인들에게는 잊혀진 이름이었던 이승만이 해방 후 국내의 좌, 우파들에 의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내지는 국외 민족해방운동의 주요 지도자로 인식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지식인들의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방송 청취를 들고 있는 것이다.[11]

III. 식민지 한국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양상

1. 강제권력

1929 년 2 월 20 일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가 동경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었던 것은 강제권력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1919 년 3 월 1 일의 독립운동은 일본의 무단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민심의 발로였으며 만일 강압적 조치가 없었다면 희생자만 늘어나고 진압에 실패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2]

3.1 운동 이후 일본은 기존의 헌병통치제도를 폐지하고 경찰력으로 대체시키면서 이를 군정을 폐지하고 민간 행정부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였다. 『The New York Times』 1919 년 8 월 21 일자에 따르면 일본 천황과 수상은 국내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었던 헌병제도를 폐지하며 한국인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총독과 정무총감을 교체하였다고 교육, 행정, 산업 등 모든 면에서의 개혁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18,955 명 (1924 년) → 20,642 명 (1937 년) → 21,782 명 (1938 년) → 60,000 명 (1941 년) 의 순으로 경찰의 수가 늘어났고 특히 1938 년부터 41 년의 3 년 동안 경찰의 수가 약 3 배 급증했다. 그리고, 이들 경찰은 한국인의 생활상에 침투하여 사상통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든 단체와 집회를 감시, 통제하였다.[13] 일본은 더 나아가 1938 년 3 월 25 일에 일본인 66 명과 조선인 33 명으로 구성된 경찰을 선발하여 중국 실정에 대해 교육시키고 중국의 질서를 유지시킨다는 임무를 주어 북경과 천진으로 파견하였다.[14]

이렇게, 일본이 1930 년대 후반부터 중국지역에까지 경찰을 파견한 이유는 중국 측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때문으로 일본정부는 상해임시정부 인사들과 협동으로 항일 군사작전을 협의하고 있던 장개석(蔣介石)정부의 움직임을 적극 저지하였다. 즉, 1937 년 7 월 20 일 경 일본의 중국 침략이 격화되자 김구가 중국군과 공동으로 항일작전 계획을 협의하자 일본 정부가 장개석에게 엄중 함의를 하였던 것이다.[15]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김구는 1940 년 장개석에게 국민당의 비밀정보기관 남의사 (藍衣社) 의 책임자인 진과부(陳果夫)에게 한국혁명 사업의 지도 공작을 일임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16] 그리고 1940 년 5 월 18 일 중국 당국은 한국광복군 창설 의향을 전했던 김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게 된다.[17]

그러나 한국의 임시정부가 중국에만 의존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1941 년 말 한국광복군이 중국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자 임시정부는 3 개 사단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수 있는 군수품과 무기를 중국 외부로부터 확보하려고 하였다. 1942 년 5 월 5 일 중경주재 미국 대사관 측이 미 국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임시정부 측은 미국에게 무기대여법을 통해 한국군에게 군수품과 무기를 제공해줄 것을 희망하였다.[18] 결국, 임시정부의 노력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한반도 침투를 위해 독수리작전을 준비하게 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된다.[19]

한편, 소련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미국의 일본-중국담당과 (FESI) 가 1945 년 4 월 12 일에 작성한 비망록에 따르면 2 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다가오자 소련은 전쟁에 징집하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인들을 제대시키고 한국으로 침투시키려고 하였는데 이들의 숫자는 무려 1.5 개 사단 규모였다.[20]

2. 구조권력

일본은 식민지 초기부터 일본인의 사업을 법률과 경제관계 규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보호하였다.[21] 미국 『The Washington Post』 의 1921 년 10 월 13 일 자 보도에 따르면 1921 년의

한국은 일본보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일본인 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1940 년대 초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을 평가한 소련 외무인민위원부 극동 2 과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본의 침투를 장려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조선의 농촌경제는 몰락하고 생활은 궁핍해졌다. 1910 년 일본인들은 한국에 약 10 만 헥타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1940 년대 초에 이르면 그 비율이 75 만 헥타르를 상회하고 있었다.[22]

미국의 『The Washington Post』 1941 년 5 월 2 일자 기사 역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경작 가능한 토지의 약 80%를 강탈하여 토지 소유자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다고 기술하였다. 1941 년 소련 외무인민위원부 극동 2 과에서 작성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1)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은 조선으로의 일본인 이주로 설명된다고 지적하면서 1910 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합병한 이후 일본 본토 인구의 1%에 해당하는 650,000 명의 일본인을 조선으로 이주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23] 그 결과 조선에서 일본의 산업자본의 지배비율은 90%에 가까웠지만 한국인 자본의 지배 비율은 6%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 조선인 자본도 일본 자본의 한국 진출에 협력하면서 형성된 것이었다.

한편, 1938 년 1 월부터 12 월까지 50 명 이상을 고용한 356 개 업체의 1 일 노임 실정을 기록한 조선총독부 상공과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인 남성은 한국인 남성에 비해 약 2 배 가량의 임금을, 일본인 여성 역시 한국인 여성에 비해 2 배 이상의 임금을 받았고 이를 통해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었다.

1940 년 12 월 30 일 서울 주재 총영사가 소련 외무인민위원부 극동 2 과에 제출한 조선의 정치, 경제 개관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노동력은 극동에서 가장 저렴하였다.[24] 1932 년 1 월 9 일 서울 주재 총영사가 도쿄 주재 소련 외교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보고서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중국인의 임금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약 2 시간 정도를 더 일하면서도 급료는 일본인의 절반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을 중국인 노동자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정당화 하려고 했다.

한미공동작전을 전개하였던 미군이 1945 년 4 월 14 일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그들이 일본에 귀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간주하고 대접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고등교육을 받는 대다수의 인구와 교사직을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중요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수준을 갖추지 못하여 인구의 75%인 1 천 6 백 5 십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상업과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 역시 약 1/10 인 1 백 5 십만 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을 받는 숙련 노동직 역시 일본인들이 독점하여 한국인 들에게는 저소득의 직업만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일본인의 사업은 법률과 경제관계 규정을 통하여 철저하게 배려 받고 보호되는 반면 한국인의 사업들은 대부분 영세하였다.[25]

한편, 소련은 1910 년대부터 조선에 대해 독립자금이나 수재의연금을 지원하여 구조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소련은 상해 임시정부가 국무총리 이동휘를 파견하여 협력을 요청하자 임시정부를 승인하였다. 이동휘는 한형권을 파견하여 소련의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물론 이는 이승만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소련은 이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기울였다.

예를 들어, 소련은 1922 년 조선공산당에 260,000 루블을 지원하였으며[26] 1925 년에는 조선에 수재가 발생하자 2 차례에 걸쳐 20,000 엔과 150,000 엔을 수재의연금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소련의 수재의연금 지원은 일본 내무성에 의해 압류 당하였는데[27] 전술한 것처럼 일본은 상해 임시정부와 소련 간의 관계를 거론하여 조선의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는 한편 한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였다.

일본이 소련을 경계한 이유는 소련이 자국 영토 내의 한국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외국 언론을 통해 소련 영토 내의 한국인 공화국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The New York Times』 1924 년 7 월 27 일자에서는 소련이 연해주 지역의 모든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회의를 소집한 이후 이를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얻어 공화국 수립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1926 년 1 월 30 일경 소련이 한국에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 30 만엔을 선전비로 보냈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수령한 단체를 수사하는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금지시키고 위반자는 국가보안법으로 조치하였다.[28]유사한 맥락에서 레닌 탄생 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한국인들에 대해 일본 경찰이 레닌에 관한 어떤 강연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저지시켰다.[29]

1928 년 3 월 12 일과 21 일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가 작성한 일지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일보를 정간시켰고 그 이유는 조선일보가 소련에 동정적이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일본인 경찰 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조선일보 정간의 실제적 원인이 소련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30 년대 초까지 일본과 마찰을 빚을 수가 없었고 그 이유는 소비에트 혁명 이전까지 제정 러시아 정부 산하에 있었던 서울 총영사관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 정부는 일본 정부의 협조를 얻어 막대한 재산의 총영사관 부지를 러시아 정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었지만 러시아 정교회의 신부가 도쿄에 망명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백군 단체와 함께 이를 매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반환을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31]

한편, 소련과 달리 중국은 전술한 것처럼 1930-40 년대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구조권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 역시 1937 년 9 월경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3 만 명의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민당 조직이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경찰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에서는 중국 측이 전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경을 통해 한국으로 침투하고 선전활동 등을 통해 자신들의 구조권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군 사령부에 신문과를 설치하여 한국의 신문과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시켰다.[32]

그리고,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구조권력의 증대에 주목하여 중국을 소련보다 한국의 독립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존재로 간주하게 되었다. 중국 국민당 중앙위원회가 1944 년

7 월 31 일 한국 임시정부 측에게 베푼 만찬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전통적 배경을 강조하고 협력을 강조하였음을 보고한 프랑스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시각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33] 나아가 주중 프랑스 대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1945 년 4 월 16 일 보낸 보고서에서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의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중국 경찰의 밀착감시를 받아 행동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34]

따라서, 미국은 장개석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전후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뿐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42 년 10 월 김구가 중국이 한국의 임시정부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장개석에게 임시정부의 군사 조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데 동의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조소앙과 안원생 등의 임시정부 지도자들 역시 중국이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임시정부의 위치를 미국의 워싱턴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다.[35] 그리고, 루스벨트는 장개석에게 특별고문 래티모어 (Owen Lattimore) 를 파견하여 중국이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아시아에서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웃국가들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36]

3. 제도권력

핸더슨 (Gregory Henderson) 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통치는 프랑스의 알제리 지배정도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례없이 가혹한 것이었고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1940 년대 초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을 평가한 소련 외무인민위원부 극동 2 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이식된 국가제도는 전적으로 일본의 이해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에 집중되었다. 이는 다른 식민지들과 비교해도 매우 심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영국이 눈가림으로 자치 기구를 설치하였지만 한국에는 이러한 자치 기구마저도 없었다.[37] 그리고 일본인들이 1880 년대부터 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37 년경 일본인 이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41.4%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이었는데 이는 전체 한국인 인구들 중 2.9%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국인 공무원의 비율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일본인들은 독일 법을 모방하여 복잡한 법체계를 한국에 이식하였으며 교통과 통신기술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방 유교 엘리트들에 의해 오랜 기간 동안 강력하게 주입되었던 법률과 행정결정에 대한 존중심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38]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일본의 제도권력이 미치지 않는 중국 간도지역과 소련 시베리아 지역으로 점차 이주하게 되었다. 『The New York Times』 1924 년 7 월 27 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미 당시 일제의 지배를 피해 시베리아와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의 숫자가 2 백만 명 이상이었다.

특히 간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만주침략이 본격화된 1930 년대 이전까지는 중국인들이 반일감정으로 인해 일본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공간이었다. 1933 년 당시의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간도의 조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7%에 상회하고

있었고 간도의 한국인 인구는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346,194 명 (1826 년) →403,873 명 (1933 년) → 680,000 명 (1944 년)

그리고 이렇게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와 중국, 일본으로 이주함에 따라 정작 식민지 한국 인구는 매우 저조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1940 년 5 월 25 일자 도별 인구를 집계한 조선일일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정리한 소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2,800,647 명으로 1938 년과 비교하여 불과 166,896 명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가옥당 거주인구 역시 5.3 명이 거주하여 전통적인 대가족제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생산권력

생산권력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외부 세력들로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을 들 수 있다. 한미공동작전을 전개하였던 미군이 1945 년 4 월 14 일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까지도 일본, 유럽 혹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특권 계급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일본의 한국지배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었다.[39]

먼저, 미국의 경우 미국 선교사가 설립한 중학교들이 1919 년 벌어진 3·1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40] 1919 년 3 월 20 일 러시아 부산 주재 부영사가 동경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3·1 독립 선언과 관련해 보낸 보고서에서 일본 경찰은 부산 지방 독립운동의 배후를 미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추종자로 파악하였다 (박종효 2010, 35) .『The Washington Post』 1921 년 10 월 13 일자 기사 역시 "일본의 한국 통치에 대항한 폭력행위의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일본 당국자들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연계되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 일본의 식민지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다. 한미공동작전을 전개하였던 미군이 1945 년 4 월 14 일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경우 90%가 넘는 문자 해독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40-50%의 한글 해독력을 지녔던 일반인들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숫자였다.[41]『The Washington Post』 1921 년 10 월 13 일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들의 숫자는 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선교활동과 직업학교 운영을 병행하여 한국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당시 한국인들은 기독교 신앙으로의 개종에 대해 변절자로 간주할 정도로 비우호적인 분위기였지만 기독교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40 만의 개종자를 얻을 정도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여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한국인들에 대한 계몽"과 "내정간섭"을 막기 위해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Los Angeles Times』 1919 년 5 월 6 일자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3·1 운동 당시 일본인이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한국 임시정부의 워싱턴 대표단은 이들의 입을 빌려 한국의 상황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 여론도 우려를 보이기 시작하여 『The Washington Post』

1919 년 5 월 6 일자 보도에서는 미국 선교사의 입을 빌려 한국에서 교회가 약탈당하고 있으며 일본이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조치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이승만 역시 『The Washington Post』 1919 년 5 월 12 일자 지면을 빌려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롭고 완전한 독립정부가 수립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기독교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미국 정부가 호의적 중재력을 발휘하여 일본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한국 영토에서 물러나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한국의 3·1 운동에 개입하지 않았고 미국의 『Los Angeles Times』 1919 년 5 월 6 일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16 년 3 월 24 일 독일 잠수함이 프랑스 해협에서 미국의 증기선 서섹스호를 격침시킴으로써 미국과 독일 간에 전쟁 위기가 감돌자 일본이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일본은 부적절한 아시아 이민자들을 추방한다는 미국 의회의 이민 법안에서 일본인 조항을 삭제시켜버렸다. 이어 일본은 영국, 프랑스와의 비밀 조약 체결을 통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섬들에 대한 양보조항을 추가하였는데 태평양 지역의 섬들이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 (Woodrow Willson) 정부 역시 일본정부와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협상을 통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독일에 대항하는 전쟁 참여를 이끌어 냈으므로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우려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19 년 3 월 8 일 일본 조선총독부 외사과장이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에게 보낸 문서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서울과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3.1 독립운동 집회에서 외국인이 자주 목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인을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물론, 표면상의 이유는 집회에 참가시 외국인이 부상을 입거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것은 자명했다 (박종효 2010, 34-35) .

한편, 일본은 의도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교육 하여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실제로 1939 년까지 한국의 총 학생 수는 11 배 늘어났지만 일본인 아동이 모두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인 아동은 세 명 중 한명만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42] 대학교 역시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어 일본인의 입학은 자유로운데 반해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경찰의 조회가 필요하여 조선의 유일한 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의 경우 학생의 70%가 일본인이었다.[43]

1945 년 당시 15 세에서 30 세의 청년층 중 40%가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15%만이 일본어를 이해할 수 있었던 노년층에 비해 2 배 이상에 달하는 결과였지만[44] 일본은 태평양전쟁 말기까지 속성 일본어 학원 1 만개를 개설하여 3-4 개월 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45]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였고 이는 한국민족이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43 년 1 월 15 일 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가 소련 외무인민위원부의 부 외상에게 보낸 1942 년도 조선, 정치 경제 개관에서는 이를 잘 지적하고 있다. 즉 일본이 32 년 간 한국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 15%만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2 만 명의 한국인 수감자들은 강한 항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6 년 간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무기를 내주지 않고 탄압할 수만은 없게 되자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 한편,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한국을 철저히 일본의 한 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다.[46] 한미공동작전을 전개하였던 미군이 1945 년 4 월 14 일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을 "일본인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모든 사업상의 거래는 물론 학교에서도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일본인 성을 따를 것을 강요하였다. 나아가 일본은 한국어 신문을 폐간하는 한편 한국의 토속종교를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로 대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황궁에 대한 숭배행위를 강요했다.[47]

한편, 미국 워싱턴 D.C 의 전략첩보국이 1945 년 3 월 9 일에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소련은 한국의 민간행정을 접수하기 위해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조직을 완성해놓고 있었는데 이는 제도 권력의 중요성을 소련이 이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일부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소련이 일본의 뒤를 이어 한국을 지배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48]

IV. 결론

지금까지, 본문에서 살펴본 외부 행위자들의 권력의 작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는 시대와 나라들 별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1910 년대에 일본은 한일합병이 이루어지자 이전부터 이식시켰던 강제권력과 구조권력을 작동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외부 행위자는 미국을 들 수 있으며 미국은 교육계를 중심으로 생산권력을 구축하여 1919 년 3.1 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 이식되었던 미국의 영향력은 제 1 차 세계대전에의 참전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압력행사와 1940 년대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지만 라디오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다시 응집되었으며 1945 년 8 월 해방이후 미군정이 진주하자 3 개의 주요 외부 행위자들 중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구성원들에게 가장 약하게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미국이 자신들의 제도권력과 생산권력을 한국사회 전체로 퍼뜨려 한국의 국가건설과 사회형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49]

둘째, 강제권력과 구조권력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1919 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은 192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한국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권력과 생산권력을 이식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구조권력을 중심으로 한 소련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는 일본에 의해 저지되기는 하였지만 소련은 한국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 행위자 중 하나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1945 년 8 월 해방 무렵에는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소련을 추종하는 인사들이 친 중국세력과 함께 최대 분파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권력과 제도권력을 투사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1930 년대의 시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이 중국 대륙에의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한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920 년대부터 이식시키기 시작한 제도권력과 생산권력을

본격적으로 작동시키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외부행위자의 경우 중국이 구조권력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권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넷째, 1940 년대는 일본이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강제권력과 구조권력, 그리고, 제도권력과 생산권력 등 모든 직, 간접적인 권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작동시킨 시기였으며 외부행위자들 역시 한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강제권력을 지원하기 시작한 중국과 미국, 소련이 일본 패망 이후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되었다. 그러나, 1930 년대부터 한국의 임시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중국에 대해 미국과 소련, 모두 내켜하지 않고 있었다. 1945 년 6-7 월경 열린 중경 임시의정원 의회결과를 보고한 미국 OSS 의 보고문건에 따르면 당시 임시정부 구성원들은 한국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진 이후에는 중국, 미국, 소련이 한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독립된 한국 수립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지지성향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를 나라 별로 분류하면 친 중국 집단 40 명, 친 소련 집단 40 명, 그리고, 친 미국 성향의 인사가 20 명이었고 각 집단의 주요 인사들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①친 중국집단은 김구, 박찬익, 조완구, 엄항섭, 조소앙, 조성환, 이시영, 신익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②친 소련 집단은 김원봉, 김규식, 김상덕, 장건상 등이 대표적 인물이었다. 마지막으로 ③친 미국 집단은 홍진, 김붕준, 유동열 등이 이를 대표하고 있었다.

특이할만한 것은 이들 중 친 중국 집단이 전쟁 후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하면서 소련이 한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통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 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소련이 한국을 통제하는 경우 지금 일본인들의 지배하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들은 조소앙이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임시정부를 대표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미국에 화가 나있었지만 소련보다는 자신들을 후원했었던 중국 국민당과 밀접한 관계였던 미국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았던 김구와 임시정부 측 인사들은 일본 패망 이후 중국 동부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던 중국 공산당 세력과 소련의 흐름을 국민당과 협력하여 저지하려고 한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중국 문서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정보국은 김구의 조카인 김은충과 접촉하여 3 백 명의 대원으로 결성된 광복사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 소련 공산당의 동북지역 한인사회에의 침투를 막고 장차 있을지 모르는 남, 북 간의 전쟁에 대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50]아울러,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한국 해방을 위하여 미국과 공동작전을 실행에 옮겼던 이범석은 해방이후 미군정이 공식 후원하는 조선민족청년단을 조직하여 한국의 국가건설에 참여하게 된다.[51]

한편, 친 소련 집단은 중국이 전쟁 이후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었는데[52]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하고 견제하려 하였음을 살펴보았으므로 미국과 소련이 공통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장개석의 의도를 두려워한 미국이 세력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파시스트 세력에 대항한 동맹을 형성하여 깊은 우의를 맺고 있었던 소련[53]과 함께 한국에 대해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분단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시발점이 되었던 38 도선 분할에 대해 루즈벨트 (Franklin Rossevelt) 와 미국정부의 조선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안이한 대 소련 정책으로 설명하는 한배호마저도 루스벨트가 전후의 국제 질서 구상에 있어서 소련을 포함한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질서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54] 이른바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세력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서구국가들 간 전통외교의 기본 원칙이었다고 지적한 니콜슨 경 (Harold Nicolson) 의 금언[55]을 상기시켜 본다면 지금까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해방 전후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해석을 시도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즉, 뉴딜 정책의 입안과 실시에 있어서 소련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많은 함의를 제공받았던 루즈벨트 행정부는 1933 년 소련과 공식 외교를 맺어 국교를 정상화 하였고 1939 년 독일과 불가침조약과 우호조약을 맺었던 소련을 끌어들여 미군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련군이 미국의 물자지원에 의존한 반면 미국은 소련의 막대한 병력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을 미국의 외교사학자 게디스 (Lewis Gaddis) 는 루즈벨트가 "위기 때는 다리를 건너가는 동안 악마와도 함께 걸어간다"고 비유한 것으로 서술하였지만[56]해방직후 남과 북에 진주한 미군과 소련군은 1946 년 중반 무렵까지 중간에서 잦은 파티를 가질 정도로 동맹국으로써의 깊은 우의를 나누고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이 해방 전후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현실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매트레이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었던 미국 외교관들로부터 장개석이 일본과의 전쟁보다는 티베트, 몽고 및 한국에 대한 패권을 확립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루즈벨트가 장개석이 전쟁이 종결된 다음 한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것이라고 의심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탁통치를 추구함으로써 영국과 중국, 소련 모두를 안심시키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57]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사정이었던 한국과 월남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월남의 경우 프랑스 책임하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반면, 조선의 경우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하나 또는 두 개의 다른 강대국이 참여하는 신탁통치를 제안한 것[58]이나 장개석이 건의한 한국의 임시정부 공식 승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임시정부 내부의 분열과 승인 이후 소련이 또 다른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는 이유들을 들어 거부한 사실[59]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3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3-KFR-1230002)

[1]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상일. 2004.『제국의 시선: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서울: 새물결.을 참조할 것.

[2] Lake, David. 2003.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3. pp. 303-323; Lake, David. 2007. "Escape from the State of Nature: Authority and Hierarchy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32:1. pp. 47-79.

[3] 정일준. 2014. "총론." 정일준 등저.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0-31 쪽.

[4] Barnett, Muchael and Raymond Duvall Raymond. 2005.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2.

[5] 그레고리 헨더슨 지음. 박행웅·이종삼 옮김. 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

[6] 고정휴.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1 권 일본·미국보도기사

[7] 헨더슨.2000, 105 쪽.

[8] 박종효 편역. 2010. 『러시아연방외무성대한정책자료 I: 1917-1980 년 남, 북한 자료 6.25 한국전쟁관련 끄레물 극비자료』. 서울: 선인. 163-164 쪽.

[9] 박종효.2010, 162 쪽.

[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 (2 급 비밀)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j&setId=345605&position=3).

[11] 정병준. 2005.『우남 이승만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399-424 쪽.

[12] 박종효.2010, 62 쪽.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

[14] 박종효.2010, 135 쪽.

[15] 박종효.2010, 127 쪽.

[16]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1999. 『白凡金九全集』 7－대한민국임시정부Ⅳ. pp. 47~4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 대중국 외교활동. 1940 년대.64. 한국혁명사업의 지도공작을 陳果夫가 일임할 것을 청하는 공함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2_0030_00150).

[17] 白凡金九先生全集編纂委員會編. 1999. 『白凡金九全集』 7－대한민국임시정부Ⅳ. pp. 294~29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2권. 대중국 외교활동. 1940년대. 53. 韓國光復軍 창설 의향에 대한 중국당국의 결정사항을 전하는 공함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2_0030_00040).

[1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권 미국의 인식. I. 태평양전쟁기 중경주재 미 대사관의 보고문건. 13) 대한민국임시정부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6_0010_00130).

[1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20) 한국에 대한 비밀첩보침투를 위한 독수리 작전 보고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7) 한국문제에 관한 메모;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 권 서한집Ⅱ 1940 년대. 255. 김구 주석이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3 권 한국복군 Ⅳ. 1. 영문자료. 21) 독수리작전 5 월

월례보고서.

[2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권 미국의 인식Ⅱ. 태평양전쟁기 COI-OSS 보고 및 자체 분석문건. 14) 한국문제에 관한 비망록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6_0020_00140) .

[2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 (2 급 비밀)

[22] 박종효.2010, 153-154 쪽.

[23] 박종효.2010, 151-152 쪽.

[24] 박종효.2010, 157-158 쪽.

[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 (2 급 비밀)

[26] 박종효.2010, 42 쪽.

[27] 박종효.2010, 68-70 쪽.

[28] 박종효.2010, 59 쪽.

[29] 박종효.2010, 78 쪽.

[30] 박종효.2010, 102 쪽.

[31] 박종효.2010, 107-108 쪽.

[32] 박종효.2010, 125-126 쪽.

[33]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 권 대유럽 외교 Ⅰ. Ⅵ. 중경 문서. 6)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들을 위해 베푼 만찬 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의 협력 강조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3_0060_00070) .

[3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 권 대유럽 외교 Ⅰ. Ⅴ. 1940 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13) 클라락과 임정 관련 정씨의 면담 내용 보고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3_0050_00130) .

[3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권 미국의 인식. I. 태평양전쟁기 중경주재 미 대사관의 보고문건. 25) 한국독립운동.

[36] 제임스 I. 매트레이 지음. 구대열 옮김.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33-35 쪽.

[37] 박종효.2010, 152 쪽.

[38] 헨더슨.2000, 135-146 쪽.

[3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2 급 비밀)

[40]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 105-109.

[4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 (2 급 비밀)

[42] Grajdanzev, Andrew. 1944. *Modern Korea*,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43] 박종효.2010, 53 쪽.

[44]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 (2 급 비밀) .

[45] 박종효.2010, 169 쪽.

[46] 박종효.2010, 163-164 쪽.

[47]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Ⅲ. 한미공동작전의 배경. 49) 한국에서의 선무공작과 관련한 보고서 (2 급 비밀)

[4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권 미국의 인식.Ⅱ. 태평양전쟁기 COI-OSS 보고 및 자체 분석문건. 13) 한국의 장래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6_0020_00130) .

[49] 해방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택선.「한국의 민주주의 국가건설: 1945 년 9 월-1948 년 8 월의 한미관계와 미국 사법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권력의 이식」, 정일준 등저. 2014.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참조할 것.

[5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권 중국의 인식. 1. 한국독립운동 지원과 관련한 인식. 17. 일제 패망 후, 중국 국방부 정보국이 작성한 '韓國臨時政府在華活動概況' 보고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5_0010_00170) .

[51] 이택선. 2014. "조선민족청년단과 한국의 근대민주주의 국가건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 23 집 제 2 호.

[5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권 미국의 인식. Ⅱ. 태평양전쟁기 COI-OSS 보고 및 자체 분석문건. 16)중경에서의임시의정원 회의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j_026_0020_00160)

[53] 이에 대해서는 Mark Mazower, 1999.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London: Penguin.을 참조할 것.

[54] 한배호. 2008.『한국정치사: 자유를 향한 20 세기, 독재와 반민주의 세월을 넘어』, 서울: 일조각. 55-89 쪽.

[55] Harold Nicolson, 1964. *Diplo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6] John Lewis Gaddis, 1982.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7] 매트레이. 1989. 35-43 쪽.

[58] Michael C. Sandusky, 1983. *American's Parallel*. Alexandria: Old Dominion Press. p. 87-88.

[59] Sandusky, 1983. p. 82

참고문헌

1. 1 차 문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2 권 한국광복군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3 권 대유럽 외교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5 권 중국의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권 미국의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1 권 일본·미국보도기사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43 권 서한집Ⅱ
白凡金九先生全集 編纂委員會編. 1999. 『白凡金九全集』 7

FRUS (Forie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박종효 편역. 2010. 『러시아연방외무성대한정책자료 I: 1917-1980 년 남, 북한 자료 6.25 한국전쟁관련 끄레물 극비자료』. 서울: 선인.

2. 2 차 문헌

그레고리 헨더슨 지음. 박행웅·이종삼 옮김. 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서울: 한울.
이택선.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건설: 1945 년 9 월-1948 년 8 월의 한미관계와 미국 사법제도 도입을 통한 제도권력의 이식」, 정일준 등저. 2014.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택선. 2014. "조선민족청년단과 한국의 근대민주주의 국가건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 23 집 제 2 호.
이택선. 2015. "식민지 한국에 대한 외부의 시선과 양상",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상극 /국제민주주의의 가능성 – 근대 일한지성의 사상과 실천」 국제학술대회 (「東アジアのナショナリズムの相剋/国際民主主義の可能性—近代日韓知性の思想と実践」国際学術大会) 발표문. 2015 년 8 월 6 일 일본 토호쿠대학교 요시노사쿠조 기념관 및 강좌실.
정일준 등저. 2014.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관계』.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제임스 I. 매트레이 지음. 구대열 옮김. 1989.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미국의 대한정책, 1941-1950』. 서울: 을유문화사.

한배호. 2008.『한국정치사: 자유를 향한 20세기, 독재와 반민주의 세월을 넘어』, 서울: 일조각.

한상일. 2004. 『제국의 시선: 일본의 자유주의 지식인 요시노 사쿠조와 조선문제』, 서울: 새물결.

Barnett, Muchael and Duvall Raymond. 2005.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ddis, John Lewis. 1982.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rajdanzev, Andrew J. 1944. *Modern Korea.*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Lake, David A. 2003.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5:3.

Lake, David A. 2007. "Escape from the state of Nature: Authority and Hierarchy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32:1.

Mazower, Mark. 1999. *Dark Continent: Europe's Twentieth Century*, London: Penguin.

Nicolson, Harold.1964. *Diplom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ndusky, Michael C, 1983. *American's Parallel.* Alexandria: Old Dominion Press.

요약문

본 연구는 외부 행위자들의 문서를 중심으로 일본이 1910-40 년대 식민지 한국에 대해 행사하였던 권력의 작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상황 고찰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미국과 소련, 중국들의 주요 외부 행위자들이 식민지 한국과 해방직후 한국의 분단에 대해 미친 영향을 재구성하였다.

1910 년대에 일본은 강제권력과 구조권력을 작동시키는 데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교육계를 중심으로 생산권력을 구축하여 1919년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영향력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압력행사와 1940년대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크게 약화되었지만 라디오를 통하여 다시 응집되었으며 이는 1945 년 8 월 해방 이후 미군정이 진주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이 한국의 국가건설과 사회형성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1920 년대에 일본은 식민지 한국에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권력과 생산권력을 이식하려고 노력하였다. 아울러, 소련은 한국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 행위자 중 하나로 부상하기 시작하여 1945 년 8 월 해방

무렵에는 한국에 생산권력과 제도권력을 투사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30 년대에는 일본이 중국 진출을 위한 기반으로 한국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권력과 생산권력을 작동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중국 역시 구조권력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제도 권력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모든 직, 간접적인 권력을 작동시킨 시기였던 1940 년대에 한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강제권력을 지원하기 시작한 중국과 미국, 소련이 일본 패망 이후 한국에서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게 되었다.

1945 년 6-7 월 경 한국의 임시정부는 각기 중국과 소련, 그리고,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해방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과 소련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Keyword: 식민지 한국, 일본, 강제권력, 구조권력, 생산권력, 세력균형